



르는 저주'로 해석하고 축귀를 한다고 해서 그 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패러다임을 성도들이 갖게 될 때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스티그머(stigma)를 갖게 되어 오히려 교회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미국 유학시절 둘째 아이가 수면중에 팔다리가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 응급실에도 가고 여러 차례 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의 가족에게 심방왔던 한 목사님이 응급실 가족대기실에서 "당신 부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진단을 잘못된 영적 처방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¹⁶

고난의 의미와 가계저주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은 저주하고 축출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 저주하고 축출한다고 사라지는 것일까? 크리스천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사업도 잘되고 더 부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때돈을 버는 것을 가계저주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식에 투자해서 하루 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해도 되는 것일까?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톱으로 쪼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태워지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삶도 외양적으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삶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삶도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한 자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과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틀 속에서 보면 '잠정적'인 과정일 뿐이다. 잠정적인 과정에 강박적으로 매여 신앙의 삶과 하나님과 세계를 해석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려는 '강박성 인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의 증상과 유사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저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시야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더 의지하는 태도가 성숙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집에 부적이나 명태를 걸어두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은 악령의 축복과 저주에 강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모든 날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사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삶의 사건마다 길일을 택하는 것은 자유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지주팔자를 보며 공합을 보며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결정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다.

병리적인 신앙과 가계저주론 (James Fowler)는 건강한 신앙과 병리적인 신앙을 구별하는 열 가지의 진단기준